

트리즈를 활용한 성경의 사례분석:우등생과 열등생 형제간의 비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김학준목사* †

예수전도단 / 한국창조학교

Case study of the Bible using TRIZ : The solutions of conflicts caused by consciousness of comparison between honor student and poor student in brotherhood

Rev. Kim. Hack-Jun

Youth With A Mission / Creative Academy of Korea

Key Words: Family(가족), father(아버지), sons(아들들),
identity(정체성), runaway(가출), shame(수치심), Inferiority(열등감),
Inheritance(유산상속), food, clothing, shelter(의,식,주),
condemnation(정죄함), restoration(회복), feast(잔치).

Abstract

비 기술 영역에 갈등 해결을 위해서 트리즈를 적용해 보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경의 사례를 트리즈적인 관점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문제 중에 가출한 자녀의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을 이상적으로 해결한 성경말씀을 트리즈를 통해 해석하고 보편적인 일반인도 그 이상해결책을 적용해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우등생과 열등생인 두 형제가 비교의식으로 인해 갈등하고 그 중 열등생인 동생이 수치심으로 인해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지 그 모순과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1. 서 론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목사로서 트리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트리즈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진짜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고, 문제의 상황을 쉽게 세분화 시켜서 재정의 하는 능력이며 상대가 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정의 하고 난 후에는 보편적인 모순 분석만하고 나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자녀들간의 격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우등과 열등으로 나뉘어지게 마련입니다. 수치감을 주는 사람과 수치감을 받는 사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견고한 사람과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서 자존감 자체가 사라져 버린 사람이 어느 가정이나 존재할

†김학준, 예수전도단 / 한국창조학교
E-mail : mahanaim-kim@hanmail.net
TEL : 010 - 3424 - 0361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말씀을 트리즈를 사용하여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아버지의 이상적인 해결책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넘어 롤 모델이 되는 아버지상은 어떠한지, 가정에서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통찰하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본문.

2.1 성경 누가 복음 15장에 나타난 가정문제 해결의 사례

2.1.1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

11.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트리즈를 활용한 성경의 사례분석:
우등생과 열등생 형제간의 비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1.2 성경사례 상황 요약

상황 1. 둘째 아들

- 수치심으로 집안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가출하여 먼 나라로 가서 유산을 탕진합니다. 모든 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소중함을 회복합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웠으며, 행복한지, 고난을 통해서 확연히 깨닫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상황 2. 큰 아들

-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아끼고 절제하며 노력하는데, 동생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이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그런 동생을 감싸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모든 것이 불만이 되었습니다.

상황 3. 아버지

- 아버지가 볼 때 형과 동생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때의 상황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큰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로 모든 부분에 열등하여 공부도 잘 못하고, 일도 잘 안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자녀일 경우에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는데 형까지도 동생을 무시하고,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으로 둘째는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기로 작정한 둘째를 나가게 놔두어야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만 하는 모순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 아들을 받아주어야 하고,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모순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고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이웃들과 화해할 조건이나 요소나 힘이 없는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서 적응하게 하고, 큰 아들에게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으로 여기라고 권하며 마땅히 기뻐할 것을 권합니다.

아버지라면 둘째를 꼭 같은 공간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공간에다가 집을 하나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형이 있을 때는 같이 집에 없어요, 그런데 형이 없을 때는 같이 밥을 먹어요. 형하고 같이 앉으면 서로 보기 싫으니까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형하고 따로 해서 밥을 먹게 합니다.

3. 문제 해결.

형과의 관계에서 받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인해 집을 가출 하겠다는 문제.

3.1 가출 허락의 문제.

1. 가출 허락의 문제	
경계영역	왜 가출을 하느냐?
시간분리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공간분리	같은 공간에 두어야 하고,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되고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집 안에서는 해결 하면 안 되고
조건분리	.
해결책	가정과 집과 양육의 기능은 의식주를 제공하여 생육하게 하는 것이니까 아들이 집과 옷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능이 살아 있으면, 가출이라고 해서 떠나고 안 떠나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가출을 결심했느냐를 알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비교 관계를 통해서 수치심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자기 정체성의 결여로 도저히 한 집에서는 살길을 찾지 못하는 둘째 아들을 악순환이 지속되는 같은 공간 안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주관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가출 여부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가정의 기능인 의식주를 공급할 수 있으면 집 있으나 집 외부에서 생활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부모와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 데리고 와야 하고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하는 모순에서도 형과 부딪치지 않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자기가 적당하다고 하는 위치에 머물게 하면 되는 것이다.

3.2 유산 상속의 문제

가출하려는 아들이 자신의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면 안 되는 문제와 모순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 유산 상속의 문제	
경계영역	유산이 무엇이며 용도가 무엇이나?
시간분리	유산을 부모님이 상속자에게 임종 전에 지급해야 하고, 임종 후에 지급하고.
공간분리	부모님 계신 곳에서 직접 지급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재중인 곳에서 지급받고
조건분리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가 죽었느냐? 육체적으로 죽었느냐, 관계와 정신적으로 죽었느냐?
해결책	유산은 부모의 임종으로 인한 부재시 자녀의 서열과 부모의 판단과 재량권

트리즈를 활용한 성경의 사례분석:
 우등생과 열등생 형제간의 비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p>안에서 상황과 차등에 따라서 지급되며, 때에 따라서는 증여를 거절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p> <p>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겪을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어지는 물질입니다.</p> <p>죽음을 전제로 증여하고 상속 받는 유산은 증여하는 부모관점에서 유산도 있지만 유산을 상속 받아서 사용할 자녀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도 유산은 지급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p> <p>그런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족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겠다고 유산을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p>
평가	<p>유산상속은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아들(자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p> <p>관계적 임종을 맞이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이 살아날 방법과 계획을 제시하면 유산을 상속하여 아들이 사용하도록 합니다.</p>

3.3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3.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경계영역	돌아 온 것이 아들이냐, 유산이냐
시간분리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해보고 상황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냐.
공간분리	집안에 들일 것 이냐 집 바깥에 둘 것이냐
조건분리	원하는 것이 아들이면 유산이 없어도 살아 돌아온 것 만으로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만 물질이면 아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밖으로 내쳐야 한다
해결책	<p>유산을 지급하고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아들의 상처인 수치심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의 부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p> <p>아들은 비록 빈털터리 거지 노숙자의 모습을 가진 탕자지만, 자신의 탕자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아들의 위치를 연연하지 않는 열등감과 정체성이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p> <p>“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족하니 종의 한 사람이라도 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p> <p>집에서는 모르고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p> <p>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아들이 되어 돌아왔으니 유산을 지급한 이유와 목적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p> <p>그러므로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더럽고 누추한 외모를 씻기고 의복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p>
평가	<p>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작전.</p> <p>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용납하였으며, 아무 조건 없이 유산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나간 순간부터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의 외모와 유산의 유무보다는 아들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부분입니다.</p>

3.4 동네 사람들과 관계회복을 위한 잔치.

둘째 아들이 폐인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테니까, 상황을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데 주변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다는데 거기에 어떤 말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잘 살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잘 대해 달라, 그 당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이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마워 할 것입니다.

4. 동네사람들과의 관계회복의 위한 잔치	
경계영역	아들을 관계회복을 위해 아버지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과 관계를 치고 나가야 합니다.
시간분리	둘째를 받아들이거나,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일 때 형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잔치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 형을 일정을 잡아서 집안 일로 좀 멀리 출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형이 집에 없잖습니까? 그럼 시간적으로 그 형이 없는 시간 때에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공간분리	사람들을 불러야 하고 부르지 말아야 하고의 모순과 잔치를 열어야 하고, 잔치를 열지 말아야 하고, 어디서 잔치를 여느냐? 자기 집에서 열 수도 있고, 사는 동네 주민 센터 같은 공공시설에 가서 잔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조건분리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니 잘 살 수 있도록 잘 대해 달라.
해결책	동네사람들과 아들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할 때, 사람을 불러야 하고 부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네사람을 전부 다 부를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사람,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말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만 부르면 됩니다. 공간분리를 해 보면 불러야 하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모순에서 핵심적인 인물들만 다 불러가지고 잘 먹이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다 잘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먹여야 하고, 잘 먹이면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말빨이 센 사람 몇 사람만 모아가지고 진짜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한끼 식사 대접해서 먹여 보내는 것입니다.
평가	부모로서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면 남의 이목을 살피면서 자식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지만. 아들이 수치심과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없어서 집을 떠났기에 가출과 유산상속을 허락 할 때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약하며 회복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회복작전을 신속히 진행하여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료하려는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의지할 분,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를 활용한 성경의 사례분석:
 우등생과 열등생 형제간의 비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3.5 큰 아들과 화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며, 집에 들어와 있는 동생에 대한 소식을 집 근처에 도달했을 때 전해 듣게 된 큰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며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5. 큰 아들과 화해	
경계영역	동생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시간분리	지금 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황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만 고립되는 문제가 된다.
공간분리	집 밖에서 자신이 왜 동생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와 유산에 대해 불공평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야 한다.
조건분리	유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동생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유산을 다 탕진한 동생에 비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신은 염소새끼 한마리도 주지 않았음을 항의 합니다.
해결책	<p>큰 아들이 말하는 원인은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출해서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인 동생만 편애를 하고, 특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p> <p>들어난 부분은 자신이 동생을 무조건 미워하고, 수치감을 주고, 열등감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p> <p>자신도 동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됩니다.</p> <p>해결방법으로는 집을 가출하기 전에 동생인 둘째로서는 관계의 단절로 고립되어 죽은 자와 같았고, 비록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러한 여정과 고난으로 인해서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두 번째 항의 내용은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과 먹도록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이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p> <p>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실 때 각각 동일하게 나누어서 분배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실상은 다 큰아들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모양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처럼 살아왔던 자신을 아버지가 차별하게 해주셔서 오해의 문제가 해결되어 동생과 화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p>
평가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산을 분배하여 나누어 줄 때, 사랑의 아버지 일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아버지로서 큰 아들에게도 사랑하고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녀를 더 챙겨주는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의 모습도 발견하지만, 다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하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 결 론

사랑과 관심이 가족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러령 장관님과 대화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먹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상대의 말에 내가 먹히기를 원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내 말이 상대에게 먹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반면 상대의 말이 내게 먹혔다는 것을 상대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상대가 나의 모든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됩니다. 주제가 되는 성경말씀을 보아도 큰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함으로 문제가 더 커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말과 필요를 모두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상해결책을 도출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족하다 해도 그 자녀들을 이끌 아버지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는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과 표현된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참으로 좋은 이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소유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의미와 행할 방법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처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사랑의 실천을 트리즈의 모순을 경계영역에서 찾아서 분리하며 이상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는 방법을 비 기술 영역에서 더욱 발전시켜 모두가 모순을 해결하는 삶의 처세에 탁월한 능력자가 되도록 이끌고 싶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트리즈가 탁월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트리즈는 정말 통찰력과 분별력과 대화에 감화력을 높여 줄 수 있는 탁월한 학문이요, 현실적 적용에 가장 실용적인 도구입니다.